

6·25, 베트남전 ‘참전수당’ 천차만별

전남 시·군 조례 따라 예산 규모·유공자 수 감안 지급
지원 연령도 차이...형평성 맞게 지급 기준선 마련 필요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남지역 각 시·군별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군이 자체 조례에 따라 예산 규모와 유공자 수를 감안해 지급하다 보니 빛어 현상인데, 각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 수당지급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역 내 6·25 전쟁 등 참전유공자는 1만4874명으로, 이들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달 20만원, 각 시군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부 수당은 매달 같지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여수(1887명)·순천(1403명)·광양(629명)으로 일인당 7만원이다.

이어 ▲해남(778명) 6만원 ▲목포(1214명)·곡성(474명)·구례(367명)·고흥(857명)·영암(517명)·영광(507명)·완도(623명) 5만원 ▲담양(543명)·나주(77명)·장흥(500명)·강진(429명)·함평(333명)·장성(474명)·진도(402명)·신안(420명) 등 4만원 등의 순이다. 화순은 569명의 참전 유공자 중 베트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6만원, 6·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씩을 지급한다. 무안군은 632명의 유공자 중 6·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 베트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4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반면 가장 적은 참전수당을 받는 지자체는 보성(546명)으로 일인당 3만원이다. 여수·순천·광양보다 절반 가량 적게 받는 셈이다. 또 최초 지원연령이 각 시군에 따

라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곡성·무안은 나이가 제한이 없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들 사이에선 참전수당이 정당성·형평성 차원에서 형편없는 수준이고 금액도 적은데다 지역차별까지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

■전남 시·군별 참전수당

시·군	유공자	수당	시·군	유공자	수당	시·군	유공자	수당
여수	1887명	7만원	고흥	857명	5만원	강진	429명	4만원
순천	1403명	7만원	영암	517명	5만원	함평	333명	4만원
광양	629명	7만원	영광	507명	5만원	장성	474명	4만원
해남	778명	6만원	완도	623명	5만원	진도	402명	4만원
목포	1214명	5만원	나주	77명	4만원	신안	420명	4만원
곡성	474명	5만원	담양	543명	4만원	보성	546명	3만원
구례	367명	5만원	장흥	500명	4만원			

* 화순군 569명 베트남전 6만원, 6·25 6만원 / 무안군 632명 6·25 5만원, 베트남전 4만원

라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각 시군은 해당 조례에 근거, 예산 규모나 지급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소록도 ‘한센인 강제 낙태’ 특별법정 현장검증 20일 고흥군 도양읍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법정을 연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한센인들에게 낙태를 실시한 검시실에 대해 현장검증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한센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5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직접 사건 현장인 소록도병원을 찾아 특별법정을 연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소록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승춘 ‘5·18 모욕’ 더이상 못 참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이 이번 주 안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추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

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한 데 반발한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개탄을 넘어 분노한다. 이번 주 안으로 야 3당은 해임추구결의안을 발의하겠

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번에도 박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3당은 이른 시일 안에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박 처장을 해임하

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추구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6·25 기념 호국 퍼레이드 광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마철 운전·차 관리 요령 ▶15면
휴가철 가고싶은 전남 섬 11곳 ▶18면

민선 6기 전반기 공약이행 평가 광주시 ‘A’·전남도 ‘B’

(17개 시·도 최하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광주시교육청 ‘SA’ 최우수
전남도교육청 ‘A’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전반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65점 이상)과 B등급(55점 이상)을 받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도는 인천시와 함께 최하위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최우수인 SA등급과 A등급이 매겨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일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광주시는 170개 공약 가운데 완료 공약 16개, 이행 후 계속 추진 57개, 정상 추진 97개로 분류됐다. 전남도는 76개 공약 가운데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5개, 정상 추진 50개, 일부 추진 6개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밝힌 공약 이행 재정계획 5조9160억7100만원(국비 2조4140만2700만원, 시비 1조5144억5200만원, 민간 1조9625억7700만원 등) 중 확보한 재정내역은 2조2827

만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0조7990억8200만원(국비 6조4935억6500만원, 도비 5112억9100만원, 시군비 5723억9500만원, 민간 2조8869억8100만원 등)에서 2조2988만54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같은 공약 이행 확보 재정의 차이가 등급 차이로 이어졌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일자리 1만개(200억원) ▲공공체육시설(650억원)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848억원) 등 10개의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선거 이후 공약실천계획서에서는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1조2217억8400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가시화(1조1188억원)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육성(8347억원) 등을 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개발 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의 사업들은 사업 규모에 비춰볼 때 가시적인 성과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자동차산업밸리는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단의 분석이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빨간 바지의 마법’ 영암출신 김세영 연장 우승

LPGA 마이어 클래식

영암출신의 김세영(23·미래에셋·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LPGA 통산 5승째. <관련기사 20면>

김세영은 20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컨트리클럽(파 71·641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카를로타 시간 다스페인을 제압하고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역전의 여왕’다운 뒷심이였다.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3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세영은 특유의 장타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다.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한 그는 시간다와 공동선두로 4라운드를 마쳤다.

연장 첫 홀에서 김세영과 시간다 모두 티샷을 리프트에 떨어뜨렸지만 두 번째 샷에서 승부가 갈렸다. 시간다의 샷이 그린을 훌쩍 넘은 반면 김세영은 홀 1.5m



거리에 바짝 공을 붙인 뒤 버디샷으로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